

					1-B-5
제목	국문	고위험신생아의 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인 의사결정			
	영문	Ethical decision-making about withholding Treatment of High-risk Newborns			
저자 및 소속	국문	전효숙 ¹ , 김형철 ² , 이철 ³ , 정하윤 ⁴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¹ , 연세대학교 철학과 ²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³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⁴			
	영문	Hyo Suk Jeon ¹ , Hyung Chul Kim ² , Chul Lee ³ , Ha Yoon Jeong ⁴ Dept. of Medical Law and Ethic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¹ , Dept. of Philosophy, Yonsei University ² , Dep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³ , Dept. of Medical Law and Ethic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⁴			
분야	보건관리 [기타]	발표자	전효숙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1년 12월 15일				
<p>1. 목적</p> <p>1950년대만 해도 신생아중환자실의 존재는 없었다. 의학적 치료와 기술의 발달은 예전 같으면, 죽었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고위험 신생아, 즉 저출생체중아와 선천성 이상아들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가족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나 환아의 특성상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그들의 치료과정이 어렵고 치료비가 많이 들며, 무엇보다 치료에 대한 합병증이 크고 그 예후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윤리적, 법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고 있다. 이는 나아가 윤리적인 기준마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의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환아를 비롯하여, 부모와 의료인들까지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치료적 의사결정에는 치료 시작, 치료 중단, 치료 보류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치료중단이 제일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위험 신생아들의 치료중단에 대해 윤리적으로 고찰해 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p> <p>2. 방법</p> <p>첫째, 기존의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에 대한 기존의 윤리적 관점들을 정리해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치료중단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치료중단을 할 지 계속 할지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 치료중단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펴 본다.</p> <p>둘째, 실제 임상 현장과 문헌을 통해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분석한다.</p> <p>셋째, 이를 의사결정의 주체와 환아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분류한다.</p> <p>넷째, 분류된 틀에서 쟁점사항들을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준을 마련한다.</p> <p>3. 결과</p> <p>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는 의사결정의 주체들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이는 환아의 의학적 상태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교정이 가능한 경우와 치료가 어려운 경우로 나뉘고 이는 다시 모든 가능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생명유지를 보증하지만 심각한 장애와 만성질환, 수명단축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오랫동안 침습적이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통해 삶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심한</p>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 때 각 상황마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고위험 신생아의 도덕적 지위, 생명의 존엄성, 장애정도, 가족의 복지이고 이것은 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분석된다. 아직 연구중이어서 더 이상의 결과를 제시 할 수는 없다.

4. 고찰

여기서 제시하는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체에 자문을 구하여 객관적인 의견 수렴통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치료 중단은 생명의 종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이는 나아가 당사자들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에 이러한 사안은 더욱 공론화되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